건강 칼럼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원인

김형우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내과과장

지난해 9월 한 햄버거 프렌차이즈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린 4살 아이가 2급 장애판정을 받았다. 햄버거를 먹고 2시간 뒤 복통을 호소하다가 사흘 뒤에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아이는 두 달 정도의 치료 끝에 퇴원하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신장이 크게 손상되어 앞으로 신장 투석을 통해 살아가야만 한다고 한다.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대해 알아본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고기로 만든 음식을 덜 익혀 먹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되어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즉, 출혈성 장염의 일종으로 신장에 장애가 와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것을 잘 하지 못하여 몸에 독이 쌓이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주로 여름에 발생하며 10세 이하의 어린아이에게 자주 발병하는 질환이다.

사망률도 높고 회복된 환자 중에서도 절반은 후유증이 남게 되는 이 질환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대장염이 발생하면서 발생이 될 수도 있지만 H인자의 돌연변이 또는 결핍 등의 유전적인 요소에도 감염이 될 수 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증상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걸리게 되면 발열을 시작으로 구토, 혈변을 동반한 설사 등의 위장관염이 주로 먼저 나타나게 되며 감기 같은 호흡기 감염 후에도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약 일주일 정도 후에 급격한 용혈에 의해 피부가 창백해질 수 있으며, 소아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졸음이 쏟아지게 된다.

소변의 양 또한 비정상적으로 줄어들고, 급성 신부전이 약 한 달 정도 지속 될 뿐만 아니라. 간혹 혈뇨 현상과 고혈압이 동반되며 전신 부종과 복수 등이 생기기도 한다. 만약 질환이 중추신경계에 침범할 경우 경련, 마비, 혼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간혹 말기 신부전이나 뇌 손상 등의 이유로도 사망 할 수 있으며 임신 시 발생하는 용혈 요독 증후군은 대부분 전자간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하게 되지만, 출산 후 대부분 회복된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치료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수분의 유지, 전해질 및 산염기의 문제 해결과 같은 일반 요법이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고혈압을 조절해야 하며, 일부 원인균이 확진 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생제의 치료는 오히려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원인이 되었던 출혈성 대장균은 1주일 정도면 후유증 없이 치료되지만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절반은 신장 기능 손상으로 인하여 완전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혈과 투석이 필요하다. 임신으로 인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대부분 분만 후에 회복되지만 2~3일 뒤에도 질병이 계속되는 경우엔 혈장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예방과 대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원인균에 의한 감염이다. 원인균의 감염경로로 가장 유명한 것이 덜 조리된 쇠고기가 들어간 햄버거인데 이는 가축이 도살되는 과정에서 분변을 통해 고기에 오염될 수 있으며 이 고기를 갈게 되면서 균이 고기 속에 완전히 섞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쇠고기와 햄버거용 고기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서 먹도록 해야 하며 적어도 섭씨 68℃ 이상에서 조리해야 한다.

또한 저온살균 처리가 되지 않은 우유를 마시거나, 하수에 오염된 물에서 수영을 하거나 마시는 것 역시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항상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손을 닦는 습관을 길러야 하고 배설물 등으로 오염된 장소는 피해주는 것이 좋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음식을 덜 익혀먹을 경우 감염되는 여러 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이다. 소아에게 잘 발생 되는 질환인 만큼 아이가 먹을 음식에는 더욱 신경을 써서 조리해야 한다.

또한 평소 위생관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포함한 여러 질병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사 설

지역 균형 발전 계속 말해야

전북도는 대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말해야 한다. 전북도가 대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전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일뿐더러 새정부도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의 열망을 존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역의 균형발전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로서는 든든한 응원군의 지원을 받는 것처럼 행동해야겠다. 무슨 말이냐면 대외적으로 발언권의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역의 균형발전은 도민의 오랜 염원이다. 역대 정부는 전북의 발전을 응원하기는 고사하고 중요한 관심사 밖으로 밀어낸 것이 분명하다. 고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해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다. 역대 정부들이 전북도의 요구에 귀를 닫아왔던 것은 사실이다. 역대 정부의 일처리 방식을 보면 지역 차별 의도가 역력했다. 전북도는 지역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이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비상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 전북도는 도민의 정서가 어떠한지 헤아려야겠다. 영남과 호남이 확연히 비교 구분된지는 오래 됐다. 지금은 충청지역과 비교해도 한참 뒤쳐져 있다.

본보가 예전에 사설을 통해 여러 번 언급했던 SOC사업만 해도 그렇다. 예산이 조금씩 증액됐다지만 그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대구와 경북 지역 쪽은 예산을 퍼주듯 하면서도 호남은 찔끔거리듯 인색하게 대했으니 말이다. 그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의 일이기는 해도 새정부에게 할 말은 해야 한다.

전북도는 오늘날 우리 지역의 모습이 균형발전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 것이다. 그러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력하고 있다고 해도 발전 변화가 미미하다면 도민들이 볼 때 전북도는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전북도는 도민들이 더 이상 유감을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지역 발전을 약속했던 현안 사업들의 힘찬 추진이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신규사업 추진 힘내야

전북도는 신규 사업 추진에도 힘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지역 발전이라는 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광역시도의 관계자들도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뛰고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발전은 경쟁의 소산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것처럼 신규 사업에도 힘내야 한다. 그리고 탄소산업을 위해 2020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야심차게 말한 것처럼 다른 사업들을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전북도의 신규사업들은 도민에게 관심의 대상이다. 그게 지금은 조금 시일이 지난 것들이라 해도 그렇다. 2018년과 2019년을 미리 내다보고 지역 발전 계획을 다듬고 있는 게 보기가 좋았던 것이다. 그때 전북도가 총 370건 6천690억원 규모의 일거리를 찾겠다고 한 것은 도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새정부도 긴축 재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도 미리 염두에 두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전북도의 신규사업 이 탄력을 받을 수가 없다.

전북도는 신규 사업 발굴과 함께 그 당위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당위성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국비 확보는 난망하다. 전북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들이 매번 도전 받았음을 전북도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역사가 오래이기에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낙후돼 있다.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체 비교일 뿐이다.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하면 뒤처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도지사를 비롯해 각 시군 단체장들과 기관장들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전북도는 뛰어야 한다. 뛰지 않으면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정부 부처를 상대로 진취적인 자세라야 끈덕진 행보도 가능할테니 말이다. 전북도는 지역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몇 개나 되는 지 생각해볼 일이다. 새만금사업 말고는 다들 고만고만한 게 지역의 현실이다. 전북도는 SOC 확충에도 힘내야 하는데 우리 지역 출신 김현미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한다.

독자제언

정전협정 ·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다가오는 7월 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 많은 사람들이 6·25전쟁은 잘 알고 있지만 정전협정이나 유엔군 참전의 날은 잘 알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지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38선 전역에 걸쳐 기습적으로 북한의 남침이 시작됐다. 유엔은 1950년 7월 7일 유엔군을 창설, 7월 8일 미국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뤄질 때까지 60개가 넘는 국가가 유엔군 일원으로 6·25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1953년 7월 27일, 3년여동안 지속됐던 6·25전쟁의 포성은 국제연합군과 북한군, 중공인민지원군이 정전협정에 서명을 함으로써 멈추게 됐다. 하지만 안타깝께도 이 협정은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종전이 아닌 전쟁의 정지를 뜻하는 정전협정이었다.

그러나 이 정전협정을 맺는 것에 수많은 젊은이들의 붉은 선혈과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참전해 준 21개국의 참전용사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정전협정을 가볍게 여겨서도, 쉽게 잊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상시적으로 무력도발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등 그 도발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긴장상태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 것은 정전협정과 한미군사동맹이다.

이러한 현재진행형의 역사를 배경으로 지난 2013년부터 7월 27일이 정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다가오는 '7·27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 분들을 찾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박재정 전북서부보훈지청 보훈과

독자제언

안전속도 5030 준수로 보행자 사고 예방

경찰청에서는 보행자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도로에서 차의 속도를 줄여 보행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 보행자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안전교육 및 시설보완 등 각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고창관내에서도 총 18명의 사망자중 7명의 보행자가 사망하였다. 보행자 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은 횡단보도 이용 등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의식 부족과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통환경에 비해 교통 안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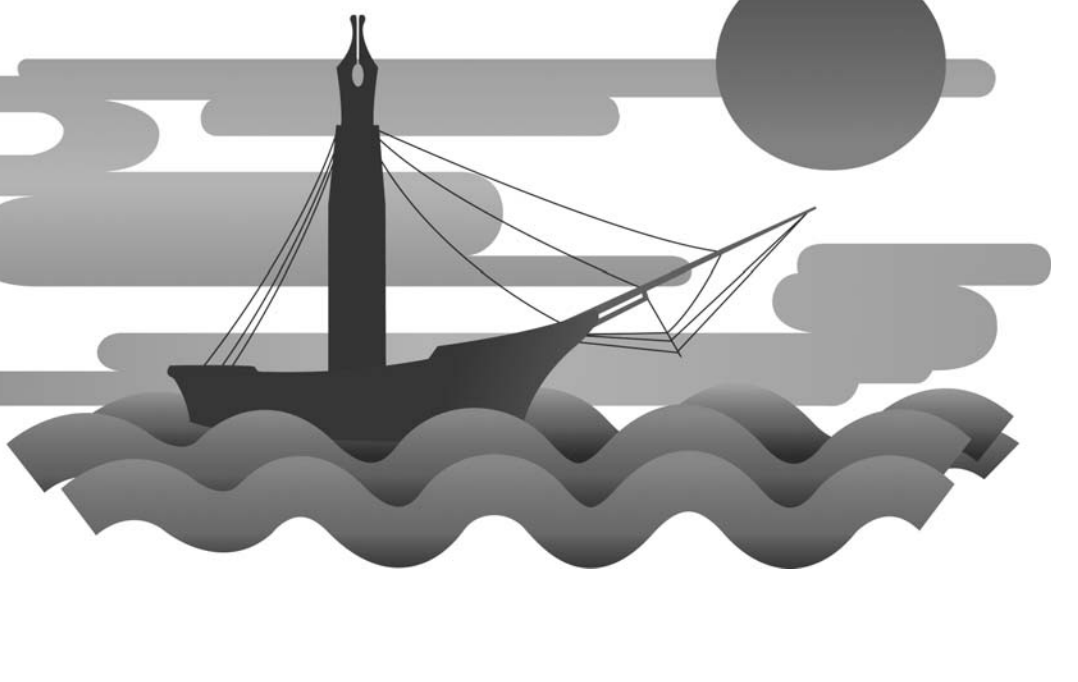
이에 따라 고창경찰서(서장 박헌수)에서는 노인당, 마을회관을 및 택시 등 운수업체 등을 방문하여 안전한 보행습관 인지와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찾아가는 교육을 펼치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위반행위 및 보행자 무단횡단, 안전모 및 안전띠 미착용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 속도 5030을 지켜 속도저감에 습관적인 운전을 하도록 하고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등 교통규칙의 습관화가 중요하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교통 안전의식을 가지고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해야만 교통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신서윤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